

호흡기성 마이코 플라즈마병

원 송 대
<한국 카아길 기술지도부장>

마이코 프라스마 갈리나룸(*mycoplasma gallinarum*)에 의하여 기도 및 폐·기낭에 병변이 생기는 만성 호흡기성 질환(C.R.D)으로, 마이코프라스마병이라고도 일컫는다.

보통 M.G의 단독 발병보다 다른 미생물(*E. Coli*)과 합병증으로 기낭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 C.R.D는 환경의 변화, 기후의 급변, 접종, 기생충 및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발병되는 수가 많으므로 “스트레스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외부 증상

아주 초기 증상은 다른 호흡기병(뉴캐슬, 전염성기관지염)과 비슷하나 처음에 C.R.D는 소수의 닭에서 발생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전파 속도가 C.R.D에 비해 다른 호흡기병은 빠르고 일시에 모든 계군이 감염 되지만 C.R.D는 서서히(수주 내지 몇달) 병세가 퍼져 나간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증상으로는 콧물을 흘리고 걸걸(골골)하는 소리를 내고 숨쉬기가 힘들어 켜켜하는 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져 사료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더 경과하면 닭들이 마르기 시작한다.

부로일러에서는 체중증가가 지연되고 채란계에서는 산란율이 떨어지며 알이 작아 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닭들을 제일 잘 찾아 내는 때는 밤에 계사내를 순회하면 발견하기 쉽다.

병리소견(病理所見)

병초기에는 기낭에 거품 같은 하얀 물질이 퍼져 있고 기도에 점액이 붙어있다. 병이 좀 심한 닭을 해부해서 간을 보면 노라면서 회색의 막이 간을 살짝 덮고 있으며 심장은 하얀 막이 싸고 있다.

복강은 치즈같은 물질이 보이고 기도나 기관지에 점액이 많이 보인다.

코라이자, 전염성기관지염, 습성계두, 뉴캐슬과 같은 질병의 초기 증상에서도 볼 수 있는 해부소견이므로 감별진단을 잘해야 한다.

예방 대책

- ① C.R.D.는 종계로 부터 모체 감염되거나 병아리 선택을 잘 할 것.
- ② 환경위생을 잘 개선하고 스트레스 요소를 경감시킬 것.
- ③ 겨울철 실내온도를 10°C 이상 유지하고 실내공기를 신선하게 해줄 것.

치료 대책

제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니실린을 제외한 항생제를 5~7일간 음수투여 한다.

C.R.D.의 특효약은 매크라이드(*macrolide*)계통의 타이로신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